



2021년 10월 10일(제1056호) 연중 제2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가을이 제법 무르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맘때쯤 반복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들녘의 벼들이 노랑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산속 나뭇잎의 형형색색 모습을 보며 “시간이 또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복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냐.”라며 과거나 현재에 집착한다고 시간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오히려 그 집착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복음 속 청년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의 삶에서 ‘집착’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여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준수하던 율법의 계명들을 불러주었으나, 청년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꼭 짚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르 10,21) 그러자 이 젊은이는 슬퍼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마르 10,23)

성인이 학생용 교통카드를 들고 탑승하면 기사님께 거절을 당하듯,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하느님 나라에 진입할 수 없다고 거절당한다는 말일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부자의 기준은 없습니다. 소유하려는 것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富者)에 해당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집착하는 사람이겠지요.

“집착(執着)”

이런 맥락에서 청년은 가진 돈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움켜쥔 자신의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느님 마음에 들고자 어려서부터 율법을 충실히 지켰노라 기세등등했지만, 결국 움켜쥔 것을 놓치지 싫어서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움켜쥐어 결코 놓치지 싫은 집착의 지점, 결국 하느님 나라의 반대 방향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고 눈 가까이 가져가 그 속을 바라보세요. 빈틈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펴는 순간 내 손 위에 모든 것이 올려집니다. 심지어 세상도 잘 보입니다. 즉 우리가 쥐려는 것들, 지금 내 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지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입니다. 누군가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괜한 상실감으로 고독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또한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 않기를 집착한다면 나뭇잎의 자리가 썩게 되고, 가지도 썩게 되고, 나무 또한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낙엽으로 흘러보낼 때에 비로소 다음 봄에 새 잎사귀를 틈을 것이고, 나무는 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내가 움켜쥐려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좋은 성찰 주제가 될 것입니다.



남동우(요한보스코) 신부
태릉(28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복 음
영 성 제 송

지혜 7,7-11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히브 4,12-1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마르 10,17-30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 번째 시한

거기서 말 두 필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현 가롤로와 이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모두 함께 길을 떠나 7일 만에 수도 서울 즉 한양에 도착하여 신자들이 마련해 둔 집(즉 돌우물골)에 들어갔습니다.

신자들의 호기심과 말조심이 없는 수다스러움과 위험을 염려하여 필요한 신자 몇 명 외에는 아무에게도 저의 귀국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조선에 돌아왔다는 말을 저의 어머니(즉 고 우르술라)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엄중히 당부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미 우리가 마카오로 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가 귀국하는 대로 즉시 잡아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는 지 며칠이 지나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저를 괴롭히더니 마침내 병에 걸렸습니다. 마치 오장육부가 끊어져 버리는 듯이 가슴과 배와 허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독히 아팠습니다. 때때로 심하게 아프다가 좀 낫기도 하고, 이렇게 한 보름 넘게 앓았습니다. 저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신자 의원과 외교인 의원을 청하여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병은 다 나았으나 몸이 허약하여 글씨를 쓸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한 20일 전부터는 눈병까지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련한 처지의 허약한 몸인데도 하느님의 도우심과 자비에 의지하여 페레올 주교님과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접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석문) 가롤로를 충청도로 보내어 해변에 집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와 배 한 척을 샀는데, 그 값이 은 146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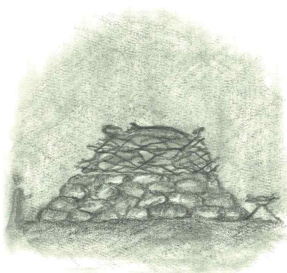
이제 중국 강남성(江南省)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참입니다. 그러나 신자 뱃사공들에게는 미리 겁에 질릴까 염려되어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자들이기는 하지만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런 믿음은 아니어도



주님,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게 주신 것.
주님께서 원하시니, 바칩니다.	님께 돌려 감사드릴 작은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아니어도.	

창세 22,1-18
이브라함, 이삭을 바치다

상화이야기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



10월 4일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이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2년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치스럽게 자라났으나, 기사와 꿈을 안고 군인이 되어 전투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었다.

많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나 다시 예전의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갔고, 그러다 중병에 걸려 생사를 헤매게 되었다. 병에서 회복한 그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기도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그에게 젊은이들이 모여들자 그들과 함께 프란치스코회(작은 형제회)를 설립하여 복음적 가난을 실천하였다.

프란치스코는 1224년 무렵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다섯 군데의 상처(오상)를 자신의 몸에 입었는데, 이러한 오상의 고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226년에 선종한 그를 2년 뒤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시성하고, 이탈리아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였다.

아씨시에는 프란치스코 성인 기념 성당과 수도회가 있는데, 한때 죄수들을 사형시켜 '지옥의 언덕'이라고 불리던 언덕에 있다. (13세기에 건축됨) 현재 이곳은 '천국의 언덕'이라고 불린다. 본 성당은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뉘며, 하층부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묘와 수도회 수도사들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상층부는 밝은 푸른색 배경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프레스코들로 채워져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8주일: 동해(해군) 김훈걸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회의 2021년 추계 정기총회
- 때·곳: 10월 11일(월)~15일(금), CBCK

◆ 국장회의

때: 10월 12일(화) 16:00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2)' 인니

-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중" - "이렇게 하는 중이 진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